



우리 경제 전체가 온통 난리다. 엉망진창이라는 말로는 지금 우리 경제를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말 그대로 국민경제 전체가 결단난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내노라하던 대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고 내일이면 또 어느 대그룹 기업이 부도를 낼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이제 하위 재벌기업이 부도를 내는 것에는 놀라지도 않는다. 국내 초일류 재벌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은행이 망하는 일이 생길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금리는 치솟고, 원화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도 들먹이는 상황에서 복합불황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렇게 위기로 몰아넣은 원인은 무엇인가? 얼마 전까지 기업들은 노동자의 높은 임금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아탄들이었다. 소위 고임금, 고지가, 고물류비용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하였다. 신한국당이 지난해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그것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97년 새해 벽두부터 계속되는 대기업의 부도가 우리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재벌 대기업이 부도를 내고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격화된 국제 경쟁, 구조 조정에 성공하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오늘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한국 재벌의 취약한 재무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어구동성으로 한국 재벌의 과다한 차입금과 그에 의존한 경영이 오늘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핵심적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조건에서는 불황기에 유동성의 위협을 받기 십상이고 이는 기업의 부실과 도산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남의 돈

을 빌려서 기업을 확대하고 운영했던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전세계적인 범위의 경쟁 구도 속에서 불황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것이다. 우선 다른 나라들과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비교해보자.

{표 1} 제조업 재무구조의 국제 비교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자기자본비율	24.8	37.5	32.3	53.4
부채비율	302.5	166.5	209.3	87.2
유동비율	94.6	139.4	131.8	124.9
차입금의존도	44.5	26.8	36.2	24.2

자료 :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1996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기업(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은 비교 상대국들 중에서 가장 낮다. 그리고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는 비교 상대국들 중에서 가장 높다. 경쟁국인 대만의 기업들에 비해 자기자본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반면 부채비율은 3배가 훨씬 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재무구조는 불황기에 이자와 원리금 상환요구에 흔들리게 되고 결국 부도로 이어져 우리 경제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경쟁국들에 비해 왜 이렇게 부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심정과정에서 있는 기업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 시설 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이러한 자금을 주식 발행보다는 은행 등을 통한 간접금융 방식으로 조달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으로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국 재벌기업들은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투자

결정, 그리고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돈벌이가 된다면 무조건 은행돈을 끌어들이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혈안이 되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경영 풍토가 허약한 재무구조를 양산하고 확대시켰다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어왔다. 금융, 세제 등 각종 제도와 법률을 통한 것은 물론이고 남의 돈(정확하게는 국민의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다가 위기를 맞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정부가 구제금융이라는 또 다른 특혜를 베풀어 왔다.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들이 부실기업의 온갖 부담을 대신 떠맡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온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들이 사업이 되든 안되든 일을 벌여놓고 보자는 식이 우리 재벌기업의 행태였음을 우리는 한보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다. 한보철강의 부채비율은 1,893%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와 같은 현상이 몇몇 특정 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군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데 있다.

우리 국민은 오랜 세월 동안 국가경제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하여 왔다. 그런데 그러한 희생으로 이루어놓은 우리의 기업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 부실한 경영으로 하나 둘 쓰러지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기업들은 망하는 순간까지도 국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고서도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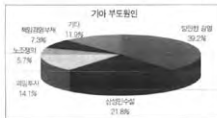
경영자라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어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브의 정태수마냥 도리어 국민들 앞에서 파렴치할 정도로 당당하다.

그러면 연초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재벌기업들의 재무상태를 살펴보자.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본금	자기자본비율
기아	93,707	-682	8,551	20.3%
삼미	16,893	-1,027	3,756	
진로	13,804	-1,725	2,384	-187.8%
한보	29,512	-425	4,577	20.2%

자료 : 기업재무종합, 한국기업신용평가(주), 1997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도를 냈거나 부도유예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하나같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자기자본비율이 20%대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미의 계열기업 중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은 거의 없었으며, 진로그룹도 전로건설, 진로종합유통 등이 적자에 허덕이는 등 경영이 매우 부실했다. 적자와 차입금의 이차부담이 압박을 가해오고 자본 잠식이 발생하면서 도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자료 :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오차편차 + 3.62%)

그러면 최근 격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아의 경우는 어떠한가?

국민기업이라는 기아의 재무 상태도 다른 부도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아도 다른 재벌기업과 마찬가지로 차입에 의존하는 방만한 경영으로 오늘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민주노총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9.2%가 기아의 계열사 확장과 부채에 의존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기아가 오늘과 같은 위기로 몰린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삼성의 인수설로 인한 자금압박, 자동차 산업의 과잉 중복투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기아에 있어서도 차입과 부실경영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비판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조건 돈을 끌어다 사업을 벌이면 되고, 국민의 돈으로 사업을 하다 망하면 또 다시 국민이 책임을 지는 구조는 없어져야 한다. 기업 경영자는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아무리 대재벌기업도 기업 경영을 잘못하면 망할 수 있고, 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국민이 부실기업의 짐을 떠안아야 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기업의 부실은 계속 우리 경제를 뒤 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